

2019년 6월 13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반도체, 금융업종이 하락 주도

반도체 업황 회복 지연 우려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33%

미 업종 변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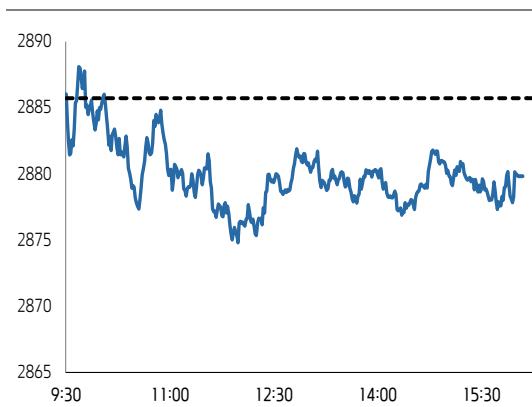
미 증시는 미-중 무역협상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제기되며 하락. 특히 반도체 및 금융, 에너지 업종이 개별 산업 이슈로 하락 하는 등 종목장세가 이어짐. 한편, 장 후반 트럼프가 “현재 중국과 불편한 관계이지만 협상은 타결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영향력은 제한(다우 -0.17%, 나스닥 -0.38%, S&P500 -0.20%, 러셀 2000 +0.04%)

미 증시는 ①반도체 ②금융 ③에너지 업종이 하락 주도. 반도체 업종은 리서치 회사인 Evercore ISI 가 반도체 업황이 2020 년 하반기까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자 급락. 특히 마이크론(-5.40%)에 대해서는 관련 산업 부진으로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 했으며, 램리서치(-5.29%)에 대해서는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하는 등 관련 기업들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서를 발표. 여기에 쉘컴(-2.32%)은 LG 전자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 월 21 일 미 법원의 판결을 옹호하자 매물 출회되며 부진. 이 결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33% 하락

금융주는 모건스탠리 금융 컨퍼런스에서 웰스파고(-2.92%)에 대해 2019 년 순이자 마진이 가이던스 하단에 그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 특히 물가상승 압력이 낮아지며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져 금융업종 실적 부진 가능성이 제기된 점도 부담.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가 4% 넘게 급락한 점이 부담이 돼 부진. 국제유가는 미 에너지 정보청이 지난주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221 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하자 하락. 전일 EIA 가 단기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19 년 원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수요 둔화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재고가 증가한 점이 부담.

이렇듯 개별 이슈가 영향을 주며 관련 업종이 동반 등락을 하고 있음. 이는 G20 정상회담에서의 미-중 무역협상, 트럼프의 대선 출정식(18 일), FOMC(19 일) 등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기 때문으로 추정. 이를 감안 당분간 주식시장은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등락률(%)	Close	D-1	지수	등락률(%)	Close	D-1
KOSPI		2,108.75	-0.14	홍콩항셱		27,308.46	-1.73
KOSDAQ		724.32	-0.61	영국		7,367.62	-0.42
DOW		26,004.83	-0.17	독일		12,115.68	-0.33
NASDAQ		7,792.72	-0.38	프랑스		5,374.92	-0.62
S&P 500		2,879.84	-0.20	스페인		9,238.50	-0.47
상하이종합		2,909.38	-0.56	그리스		843.73	-0.26
일본		21,129.72	-0.35	이탈리아		20,463.25	-0.7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반도체 및 금융 업종 하락

퀄컴(-2.32%)은 반독점 판결 지연을 요구했으나 연방거래위원회가 반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했다. 퀄컴은 LG전자와 반독점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마이크론(-5.40%)은 Evercore ISI가 하반기에 메모리 칩 산업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여파로 급락했다. Evercore ISI는 반도체 장비업종인 램리서치(-5.29%)에 대해서도 반도체 업황이 2020년 하반기까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하자 급락했다. 이 결과 AMAT(-5.14%), 인텔(-1.13%) 등 반도체 업종이 하락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33% 하락했다.

페이스북(-1.72%)은 주커버그가 문제가 되는 개인정보 보호 관행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부분이 알려진 이후 하락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관련 부분을 조사 중이다. 웰스파고(-2.92%), JP모건(-1.27%) 등 금융주는 금리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며 하락했다. EOG리소스(-1.70%) 등 원유 생산업체와 솔룸베르거(-3.03%) 등 원유서비스업종은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부진했다. 반면, 길리어드사이언스(+1.03%), 바이오젠(+0.59%) 등 바이오 업종은 금리인하 수혜업종으로 분류돼 상승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3.46%	대형 가치주 ETF(IVE)	-0.35%
에너지섹터 ETF(OIH)	-4.72%	중형 가치주 ETF(IWS)	-0.16%
소매업체 ETF(XRT)	-0.31%	소형 가치주 ETF(IWN)	-0.17%
금융섹터 ETF(XLF)	-0.99%	대형 성장주 ETF(VUG)	-0.21%
기술섹터 ETF(XLK)	-0.56%	중형 성장주 ETF(IWP)	+0.04%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81%	소형 성장주 ETF(IWO)	+0.22%
인터넷업체 ETF(FDN)	+0.06%	배당주 ETF(DVY)	+0.01%
리츠업체 ETF(XLRE)	+0.37%	신흥국 고배당 ETF(DEM)	-1.00%
주택건설업체 ETF(XHB)	-0.10%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50%
바이오섹터 ETF(IBB)	+0.61%	미국 국채 ETF(IEF)	+0.26%
헬스케어 ETF(XLV)	+0.48%	하이일드 ETF(JNK)	-0.24%
곡물 ETF(DBA)	+0.54%	물가연동채 ETF(TIP)	+0.05%
반도체 ETF(SMH)	-2.17%	Long/short ETF(BTAL)	+0.8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45.26	-1.44%	+1.14%	-5.11%
소재	360.60	+0.31%	+2.23%	+6.06%
산업재	632.00	+0.20%	+0.29%	+0.30%
경기소비재	925.32	-0.11%	+3.39%	+1.61%
필수소비재	602.01	+0.04%	+2.30%	+2.81%
헬스케어	1,056.56	+0.51%	+2.18%	+4.27%
금융	448.34	-0.95%	+0.10%	+0.64%
IT	1,339.26	-0.58%	+3.46%	+2.60%
커뮤니케이션	158.76	-0.28%	+1.78%	-1.13%
유틸리티	302.54	+1.33%	-0.31%	+2.83%
부동산	231.29	+0.26%	+0.54%	+3.1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외국인 선물 동향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1.02% MSCI 신흥 지수 ETF 는 1.07%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1,819 계약)로 0.50pt 하락한 271.6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83.6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 출발이 예상된다.

미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33% 하락 했다. 특히 일부 리서치회사에서 반도체 업황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며 관련 종목들의 실적 부진과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 한 점이 부담을 줬다. 이는 한국 증시에서 관련 종목들의 투자심리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가 4% 넘게 급락하는 등 상품시장 하락도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화웨이가 버라이즌에게 특허료 지급을 요구 하는 등 여전히 무역분쟁 이슈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투자심리 위축 요인이다. 여기에 트럼프가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협상 합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정상회담 일정 조차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오늘은 선물옵션 만기일이다. 6 월물과 9 월물 스프레드 이론 가격이 0.41p 수준이다 전일 시장 가격이 0.30p 를 기록해 스프레드 갭은 -0.11p 를 보이고 있다. 여전히 이론가격에 근접해 있어 프로그램 매수, 매도 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장중 시장 가격이 이론 가격을 상회하는지 여부에 따라 프로그램 규모가 결정 될 수 있어 관련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에너지가격 하락 여파로 물가지표 부진

5 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상승 했으며 전년 대비로는 1.8%를 기록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전년 대비로는 2.0%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 특히 에너지가격이 전월 대비 0.6% 하락한 점이 이를 주도 했다. 한편, 거비용은 전월 대비 0.2%, 의료 비용도 0.5% 상승 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급락

국제유가는 미 에너지 정보청이 지난주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221 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하자 하락했다. 특히 전일 EIA 가 단기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19 년 원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수요 둔화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재고가 증가하자 매물이 급격하게 유입되며 낙폭이 컸다. 가솔린은 전주 대비 80 만 배럴 증가 했으며 정제유는 100 만 배럴 감소 했다.

달러화는 물가지표가 예상을 하회하며 연준의 금리인하 압력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한 점,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이탈리아 및 브렉시트 우려로 약세를 보인 점이 달러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 특히 영국의 차기 총리로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지자 파운드화의 약세가 이어졌다.

국채금리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을 하회하자 하락 했다. 다만, 세부적으로 에너지가격 하락에 따른 부진이라는 점을 감안 영향은 제한 되었다. 더불어 홍콩에서의 시위가 격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점도 국채금리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특히 단기물의 하락폭이 컸다. 한편, 10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2.48 배)과 비슷한 2.49 배를 기록했고 간접입찰이 12 개월 평균(62.9%)를 소폭 상회한 65.6%를 기록해 관련 입찰은 영향이 제한되었다.

금은 홍콩 이슈와 브렉시트 우려가 높아지자 상승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보험권 혼조 마감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71%, 철근도 0.76%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1.14	-4.00	-1.04	Dollar Index	97.005	+0.33	-0.32
브렌트유	59.97	-3.72	-1.09	EUR/USD	1.1289	-0.33	+0.61
금	1,336.80	+0.42	+0.24	USD/JPY	108.53	+0.01	+0.06
은	14.753	+0.09	-0.26	GBP/USD	1.2688	-0.29	+0.01
알루미늄	1,790.00	+0.67	+1.07	USD/CHF	0.9956	+0.32	+0.08
전기동	5,852.00	-0.41	+0.77	AUD/USD	0.6928	-0.49	-0.60
아연	2,509.00	+0.10	+1.91	USD/CAD	1.3342	+0.44	-0.54
옥수수	448.50	+0.34	+3.46	USD/BRL	3.8643	+0.18	-0.44
밀	526.25	+1.59	+7.23	USD/CNH	6.9318	+0.08	+0.05
대두	878.00	+2.18	+0.95	USD/KRW	1182.60	+0.19	-0.02
커피	101.50	+2.01	-0.25	USD/KRW NDF 1M	1183.60	+0.48	+0.33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119	-2.44	-1.61	스페인	0.570	-0.60	-5.70
한국	1.602	-7.00	-8.30	포르투갈	0.651	+0.80	-2.30
일본	-0.111	-0.20	+1.20	그리스	2.738	-2.90	-20.40
독일	-0.236	-0.40	-1.00	이탈리아	2.431	+4.00	-3.70